

# 개혁 개방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전개 양상과 특성

정 덕 준\*

## 차 례

1. 서 언
2. 민족성, 민족 정체성, 민족의식
3. 사실주의, 신사실주의, 개방적 사실주의
4. 여성성, 여성의식, 여성문학
5. 결 어

## 1. 서 언

1.1. 이 연구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조선족 문단의 문학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 시기 문학비평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은 조선족 문학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대 전후의 문학비평은 이 시기 한반도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문학에 대한 단견이나 개별 작품에 대한 촌평 등이 주를 이루었고, 본격적인 비평은 1940년대 접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들어 시작된다. 그 짝은 염상섭과 안수길, 본격적인 작가론을 최초로 발표한 김중건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sup>1)</sup> 그러나 광복 후의 조선족 문단은 대부분의 문인들이 남·북한으로 귀국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광복 이후 1950년대 초 해방 공간의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은 '사회주의 문예 건설'을 화두로 하여 전개된다. 이 시기의 중국문학은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위해 노·농·병(勞農兵)을 위주로 한 인물 형상을 창조, 당의 정책에 부응해야 할 절박한 임무를 떠맡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문학은 러시아가 문예 창작과 비평의 기본 방법으로 규정한 사회주의사실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시 문단의 관심은 사회주의 그 자체였을 뿐, 사실주의가 아니었다. 즉 중국 문단이 역점을 둔 것은 사회주의라는 사상, 그리고 무산계급이나 공산주의 세계관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실주의를 당성 원칙과 무산계급의 실천적 임무와 결합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중국조선족 문단에도 당의 문예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에 따라 이 시기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은 '문예는 당의 혁명 투쟁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정치와 문학의 상관성에 대한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sup>2)</sup>

중국 건국 후의 조선족 비평문학은 크게 1949~1978년, 1978년~현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먼저 1978년 이전의 경우 비평 이론과 방법의 정

1) 염상섭의 『짜트는 대지』(만선일보 출판부, 1942)의 '서언'이 그 한 예다. 여기서 그는 재만 조선인 문학은 "참담한 이주 간민(飢民)의 생활 기록"이라 규정하고, 이 시기 조선인 문학의 성격과 과제를 제시한다. 특수한 유형적 사실에 국한된 취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만주의 '협화 정신'을 체득한 국민문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안수길은 비록 간도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보이지만, 재만 조선인 문학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명하여 이 시기 문학비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 또한 염상섭과 마찬가지로 '협화 정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성호의 「중국 조선족 당대문학 평론 개관」(『문학과 예술』, 1995. 3) 참조.

2) 팔봉의 「문학의 기본적 견해」(『인민신보』, 1945)를 비롯하여, 이석·진룡·임화·김예삼·문국·김연숙·김동구·이흥규·김인준·백석 등이 인물의 형상성 문제를 비롯하여 애국주의적 문예운동의 전개, 당의 위대한 형상 창조, 시의 진실성에 관한 평문들을 잇달아 발표하여 주목을 받는다.

립 과정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조선족 문학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바, 『해랑강아 말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작들을 발표한 김학철, 「지경들」 등 수많은 서정시를 발표하여 중국조선족 시문학의 기반을 마련한 김철 등 중견 작가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그것이다. 비평문학 역시 이에 발맞춰 권철·조성일 등 중견 비평가들을 배출한다. 권철은 김학철 문학에 대한 비평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비평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며, 조성일은 김철을 중심으로 조선족 시문학 비평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들의 선구적 노력으로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은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창작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1978년 이후의 비평문학은 각양의 이론과 방법들을 수용, 다원화 현상을 드러낸다. 이 시기의 조선족 비평문학은 권철을 비롯하여 조성일·정판룡·최삼룡·김동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평 이론과 방법들을 선보인다. 권철·조성일·최삼룡 등의 공저 『중국조선족문학사』(1988)는 이주 초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조선족 문학의 전개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조선족 문학 발전사에 있어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서구의 문학 연구 방법과 비평 이론들을 소개한 정판룡의 평문들은 조선족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들의 업적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신세대 비평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비평문학의 공간을 더욱 확대 심화시킨다. 장춘식·조일남·김성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을 현장 비평에 적용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

줄여 말하자면, 광복 후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은 급변하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동, 그리고 당의 문예 정책과 중국 문단의 사조 변화에 상응하여 비평 이론과 방법들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 시기의 조선족 비평문학은 사회 변동 상황에 직면한 조선족 문학의 당면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의 독특한 전개 양상과 그 특성은 당대 조선족 문학의 성격을 규명하고, 민족문학론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하는 참조의

틀을 제공한다고 하겠는데, 이 연구의 의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2.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은 문학관의 다원화와 비평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85년 9월, 용정에서 개최된 '중국 조선족 당대문학 평론 좌담회'를 계기로 중국조선족 문단은 서구 문학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학관의 다원화 현상을 드러낸다. 이에 힘입어 비평문학 또한 점차 다양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는 조선족 문학비평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평의 자각'<sup>3)</sup>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조일남의 지적대로, "1990년대 우리 소설 문단에서 처음으로 소설 창작과 소설 비평이 쌍벽을 이룰 만큼 우리 소설 비평의 전례 없는 자각의 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 비평이나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희곡 비평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비평적 자각'은 1990년대에 와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싹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중국 조선족 당대문학 평론 좌담회'이며, 조성일의 새 시기 문학에 대한 개관적 연구도 그 중요한 징표라 하겠다.<sup>4)</sup> 문학에서의 민족성과 민족적 특색 내지는 민족의식에 대한 관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적 연구, 개별 작가에 대한 심층 연구, 여류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 또한 이런 변화의 조짐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당 기관 문예 지도자들이 문학의 다원화와 다양화의 경향 때문에 당의 중심 과제 반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문예의 기본 선을 돌출' '주선울 고양'을 역설<sup>5)</sup>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조성일·임범송·전국권·최삼룡·현동언·한춘·박화 등 기성 비평가들의 끊임없는 '관념 갱신', 그

3) 조일남, 「새 시기 중국 조선족 소설비평 연구」, 『문학과 예술』, 2002.6.

4) 조성일, 「새로운 역사 시기의 조선족 문학」, 『문학과 예술』, 1986.1.

5)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회주의 문예의 기본 선을 돌출히 하자」(『문학과 예술』, 1991. 3), 김희정의 「주선울을 고양하여 연변의 사회주의 문예 번영을 추진시키자」(『문학과 예술』, 1994. 3) 참조.

리고 신진 비평가들의 성숙에 힘입어 문학 연구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비평적 자각'이라는 문학비평 내지 연구의 성숙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실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관념 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바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런 논의를 거쳐 중국조선족의 문학관은 다원화의 경향을 보이며 문학비평 또한 다양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도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은 아직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따라서 새로운 비평 이론과 방법론들을 탐색하여 조선족 문학이 지향해야 할 지평을 제시하는 일은 조선족 비평문단의 몫이라 하겠다.

## 2. 민족성, 민족 정체성, 민족의식

개혁 개방 시기 중국조선족 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족성 또는 민족의식에 대한 각성과 인식의 확대라 할 수 있다. 물론, 문학에서의 민족성 또는 민족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새삼 대두한 것이 아니다. 조선족 문단 일각에서는,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광복 후부터 줄곧 이에 대한 관심을 내보였다. 동민의 「민족 민간예술을 중시하자」(『동북조선인민보』, 1953.1.5)를 비롯하여, 「계속 군중 속에 감히 들어가 민족 민간예술을 발굴하자」(주선우, 『동북조선인민보』, 1954.11.11),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면에서 본 『연변문예』」(한광춘, 『아리랑』, 1957.1), 「시조문학 형식에 대하여」(김창걸, 『아리랑』, 1957.4), 「연변의 창작에서 제기되는 민족어 규범화 문제」(김창걸, 『아리랑』, 1957.7)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 발표된 「서사시 <새별전>에서의 시인의 탐구」(최응구, 『연변문예』, 1981.1)와 「시의 화원에 피어난 진달

래—김철의 서정시에 구현된 민족특색'(조성일, 『연변문예』, 1982.4) 등에서는 시의 민족적 특성 문제를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그러나 작품에서의 민족성 또는 민족적 특성을 주제로 작품에 접근하고자 한 노력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사실주의 혹은 혁명적 사실주의에서는 '혁명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었지만, 내용이 형식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적인 사상에 의하여 민족적 형식은 겨우 '민족어'와 '민족 옷차림'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더 이상의 논의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 문단은 이른바 신사실주의에 관심이 확산되는 등 사실주의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반우파' 투쟁·문화대혁명 등 갖가지 정치 변동 속에서 벌어졌던 각양의 정치 사회적 폭력과 박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상처문학' '반성문학', 중국 민족의 전통문화의 토양 속에 문학의 뿌리를 찾아 서양에 대응하자는 '뿌리 찾기 문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 문단에도 영향을 끼쳐 조선족의 생활과 역사를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고, 문학비평에서도 민족문학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여, 개혁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조선족의 생활과 운명이 조심스럽게나마 비평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문학 또는 민족성에 대한 이 시기 조선족 비평 문단의 자각은 “우리 소설비평의 ‘자아의식’의 각성”<sup>6)</sup>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현동언의 「이원길 소설의 민족적 색채」는 가장 먼저 주목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소설문학은 우선 민족문학으로 되어야 한다.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매 인간은 민족적 관습과 풍속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다. 하기에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소설가에게 있어서 예술적 재능은 우선 민족의 특징적인 관습과 풍속을 포착하고 형상적으로 그려 민족 생활의 화폭을 생동하게 전시하는 데 있다.<sup>7)</sup>

6) 조일남, 앞의 글.

7) 현동언, 「이원길 소설의 민족적 색채」, 『민족과 예술』, 1985.1.

조선족은 민족적 관습과 풍속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고, 따라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소설은 무엇보다도 민족문학이어야 한다는 현길언의 주장은 형식면에서의 민족적 특성을 문제삼은 최응구·조성일의 논의에 비해 한 차원 격상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문학'을 '민족의 특징적인 관습과 풍속'에 대한 포착이나 묘사로 규정한 것은 '혁명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라는 사회주의사실주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장춘식은 현동언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킨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문학이 된다"는 명제에 기대어 문학에서의 '민족적 특색'의 중요성을 강조한 「임원춘 소설의 민족적 특색」이 그것이다.

그(림원춘)의 소설 작품에서 우리는 민족의 특징을 이루는 풍속 습관, 사상 감정 및 심리적 소질에 대한 묘사를 여러 모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착안점을 두려고 한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야말로 '민족 정신 그 자체'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고 사회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다.<sup>8)</sup>

인간 관계를 통하여 '민족 정신 그 자체'를 파악하고자 한 이 같은 시도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민족성 문제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림원춘의 소설은 조선족으로서의 생활 내용이 분명한 인물을 형상화, 이들 인물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민족 사회'를 구성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현동언과 장춘식 모두 아직은 민족의 운명이나 의식의 문제에 직접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유원무의 장편소설 『봄물』을 분석한 김월성의 「민족의 열근성에 대한 자각적인 반성」이다. 이 작품은 1980년대 초기 농촌 개혁을 소재로 조선족 사회가 안고 있

8) 장춘식, 「임원춘 소설의 민족적 특색」, 『문학과 예술』, 1985.3.

는 각양의 문제들, 예컨대 소농 경제와 폐쇄적 사유, 그리고 무지몽매? 자기만족 등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바, 김월성은 이 작품이 조선족 사회의 “역사적 사실의 표층을 헤치고 우리 민족의 문화의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비극적인 역사가 조성된 내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고 높이 평가한다. 그는 이 글에서, 이른바 민족의 내재적 속성을 가감 없이 분석, 문학과 민족의 운명이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학과 민족 운명의 관계에 대한 답론은 조일남의 「산재 마을과 현재 우리 문학의 사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논의된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족의 실존 상황을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낙후된 ‘산재 마을’로 비유, 조선족 소설의 구태 의연한 기승전결과 대단원을 ‘산재 마을’의 춘경 추수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조선족 소설은 조선족 사회 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새 시기 조선족 소설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통한 도시문학으로 전향해야 하는 바, 이것이 민족문학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이며 지향해야 할 지평이라는 것이다.

이젠 우리 문학도 이전처럼 춘경 추수가 안 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농사꾼이 땅에서 일하듯이 ‘전형(典型)’이라는 바람직한 종자를 심고 여유자작히 곧바로 그 수확을 거두었다. 사계절 순환의 자연의 법칙대로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대단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연의 질서를 무차비하게 파괴하는 도시의 혈액 순환—‘자본’ 주전(資本周轉)의 주기가 산재 마을에 광림하는 것이다.<sup>10)</sup>

민족문학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모색은 현동언의 「새로운 시기 조선족 장편소설에 체현된 민족의식」(『문학과 예술』, 1992.5)에서 보다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이 글에서, 1980년대에 창작된 대표적인 조선족 장편소

9) 김월성, 「민족의 열근성에 대한 자각적인 반성」, 『문학과 예술』, 1988.2.

10) 조일남, 「산재 마을과 현재 우리 문학의 사정」, 『문학과 예술』, 1990.1.



설로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김학철의 『격정시대』, 임원춘의 『짓밟힌 뉘』, 유원무의 『봄물』, 이원길의 『설야』 등을 들고, 민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운명을 취급한 이들 작품들에 민족의식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 작품이 담아내 보인 민족의식을 ‘뿌리의식—선조와의 연계성’ ‘환경의식—사회·역사적 조건의 자각’ ‘우환의식—생존·자립의 추구’ 등으로 나누어 살핀다. 또한 그는 개괄적으로나마 조선족의 정체성을 모색해 보이는데, 따라서 민족의식이란 정체성 자각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족 문화비평에서의 민족의식 또는 민족적 정체성 탐구는 ‘남영전의 토템 시’ 연구에서 한 차원 높아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5년 6월 25일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포럼 ‘남영전 토템시 연구회’의 발표 논문, 그리고 최삼룡의 「민족의 얼과 운명에 대한 심층사고」와 박화의 「뿌리 찾는 시혼의 알찬 결실」(『문학과 예술』, 1995.5) 등을 들 수 있다. 남영전의 토템 시 작품들에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곰·범·사슴·백학·까마귀·까치·흙·달·해·물 등 한민족의 원시적 신앙물에 대해 연구하고 거기서 민족의 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적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민족의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또한 최삼룡·박화 등이 이러한 원시적 신앙물들을 민족의 정체성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석한 것도 민족의식의 보다 철저한 인식을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다민족 국가에서 생활하는 중국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조선족 사회 구성원의 생존 의미와 의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민족의 특성, 민족성·민족의식 등의 문제는 결국 민족의 정체성 인식에 직결되며, 이는 민족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개혁 개방 시기에 접어들어 이에 대한 탐구와 노력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조선족 문화비평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조선족 문학은 창작과 비평의 면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독립 국가에서의 배타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이 민족성 또는 민족의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 또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그것은 정치·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바꿔 말하자면, 중국조선족 문학은 오히려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조장되는 것을 막고 인류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는 바, 조선족 문단의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문학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어떤 민족적 특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실천적인 의미를 갖느냐가 정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안팎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조선족 문단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인 바,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 3. 사실주의, 신사실주의, 개방적 사실주의

1990년대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은 각양의 비평이론들에 대한 방법적 탐색을 통해 비평 방법론이 보다 다양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규모의 확장, 비평 인구의 증가에 의한 외연의 확대는 이 시기 비평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신사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단적인 예이다.

1990년대 문학비평은, 80년대의 그것이 전형적 환경에서의 전형적 인물에 관심을 보인 데 반해, 인간의 생존 환경과 인간의 실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시도한다. 이는 급속히 전개된 산업화·도시화, 이에 따

라 조선족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이것이 이른바 문학에서의 '신사실주의' 적인 인간관이다. 이것은 1980년대에 주로 논의되었던 인간성 옹호의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휴머니즘의 회복이나 신희머니즘이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사실주의의 퇴조와 동기적 관련이 있다. 조일남의 「'신사실주의'의 '사실'과 우리 소설의 경우」(『문학과 예술』, 1993.1), 이광일의 「이해선 소설에서의 신사실주의 경향」(『문학과 예술』, 1993.6)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복 후 조선족 문단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북한의 문학과 문학이론들을 하나의 전범으로 받아들인데, 사실주의 수용 또한 그러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진실성에 있고, 따라서 진실한 현실 반영을 생명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전형적 또는 전형화된 진실이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1990년대에 등장한 신사실주의는 이러한 전형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실주의(이를 전통적 사실주의라고도 한다)와 다르다. '신' 사실주의는 평범한 인간의 평범한 삶, 평범한 고민과 평범한 회노에락을 가감 없이 그려 보이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광일은 위의 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이해선 소설의 신사실주의적 특징으로 ①주제 돌출의 회피와 생존 상황, 생명 체험의 제시 ②인물 형상 창조에서의 비영웅적인 평민의식화 ③서술 방식의 객관화 등을 들고, 이것이 곧 전통적 사실주의 소설에서의 전형화 원칙을 극복하고자 한 흔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해선 소설의 이러한 시도는 "강력한 이념의 통제 없이 인간들이 각자의 생활 감수와 체험으로부터 각자의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올바른 자세"라고 높이 평가한다. 이해선 소설의 문학적 성과는 "현실에 입각하고 현실적인 체험을 꾸밈없이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생존 상태를 잘 보여준다는 데 있다"고 본 현동언<sup>11)</sup>이나, 어느 한 인물을 설정하고 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11) 현동언, 「인간 생존 상태의 탐구—이해선 중편소설의 예술세계」, 『문학과 예술』, 1993.1.

노력하면서 주제를 생경하게 드러내지 않고 도시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그린 데 특징이 있다고 본 전성호<sup>12)</sup> 또한 신사실주의적 시각을 내보인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조선족 문단의 '신' 사실주의는 세계문예사조상의 사실주의에 다름 아니라 하겠는데, 따라서 신사실주의적 시각의 문학 비평의 경우 이념적인 대결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전반기에 인간성과 계급성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림호 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장학규의 「윤림호 소설의 미, 윤리학적 취향 진단」(『문학과 예술』, 1993.1)은 그 좋은 예이다. 윤림호의 소설들, 예컨대 「투사의 슬픔」, 「두만 영감」 등의 작중인물들 대부분은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행위를 하는 특이한 신분의 인물, 이른바 전형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윤림호의 소설은 작중인물의 계급성보다는 인간성을 드러낸다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당시 조선족 평단에 전형성 빈약과 계급성 약화로 비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장학규는 이 글에서 윤림호 소설의 인물들을 전형성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인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들 인물의 행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들추어내고, 그 의미를 해명해 보인다. 장학규의 이와 같은 시각은 “전형을 보통으로 바라보고 사상을 의식으로 치환하고 생활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다”는 인문 정신의 발양<sup>13)</sup>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사실주의는 전통적 사실주의와 별다른 충돌 없이 조선족 문단의 주제로 부상하지만, 그러나 신사실주의도 그 나름의 한계를 드러낸다. 문학에서의 일상적이고 범속한 생활 세계 및 개인적 생활 체험의 세계가 전형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더없이 유익했지만, 개인적 생활 체험을 탐닉하면 사소설적인 협애성에 빠지는 함정이 그것인데, 구용기<sup>14)</sup>를 비롯하여 김용운<sup>15)</sup>·금성<sup>16)</sup> 등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경계한다. 이들은 1990

12) 전성호, 「「동네사람들」의 군체적 형상화에 대하여」, 『문학과 예술』, 1993. 1.

13) 조일남, 「새 시기 중국 조선족 소설비평 연구」, 『문학과 예술』, 2002. 3.

14) 구용기, 「치열한 문학 정신 안 보여—94 소설문단」, 『흑룡강신문』, 1994. 12. 31.

15) 김용운, 「낭만의 실각과 비극 속의 방황—1993년 『천지』 소설 일별」, 『문학과 예술』, 1998. 4.

년대 조선족 소설이 보여주는 일상적이고 범속한 생활 세계 및 개인의 생활체험 세계는 1980년대의 '문화대혁명' 청산이나 1990년대의 개혁 개방 정책과 같은 '또 다른 흥분점'으로 찾아낸 도피처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조선족 문학에 결여되어 온 인문 정신의 '오도'에서 비롯하는 문학의 비극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전경업은,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1990년대 조선족 소설의 문제점은 신사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한족(漢族) 문단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다. 벌써 수 년 전부터 한족 문단에서는 농촌 간부, 문명 건설 등을 제재로 한 창작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문단에서 농촌 건설과 농촌 간부 제재는 아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 자연과 인간, 재난 등 현실, 미래 지향의 제재를 찾기 힘들다.

10편의 중·단편소설을 보면 「병재 씨네 빨래줄」 「파랑곰 하나」 「달맞이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녀 관계를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물론 지구에 오로지 남녀 두 종류밖에 없으니 남녀 관계를 떠날 수 없겠지만 우리 문단에 '섹스' 사태가 터지지 않았나 싶고 조선족의 일과가 여성만 찾아 해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작가들이 자기 생활권을 벗어나 농촌으로, 공장으로, 시장으로 마실을 나가는 것이 어떨는지?<sup>16)</sup>

전경업은 이 글에서, 1980년대 초반 '문화대혁명'의 청산에 힘입어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새삼스런 자각과 함께 떠오른 '애정'이라는 문학의 주제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오히려 남녀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조선족 문단 현실을 비판한다. 조선족 소설문학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 나름의 인문 정신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족 문학이 어떤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징후에 다름 아니고, 따라서 조선족 문단은 이와 같은 신사실주의

16) 금성, 「어쩔 수 없이 선택된 방향—97 중국조선족 중·단편소설 진맥」, 『문학과 예술』, 1998, 2.

17) 전경업, 「음영의 절대 권위 속의 인생 그래프」, 『도라지』, 1999.1.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생활권을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조선족 비평문학은 김학철 또는 그의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새로운 지평을 탐색해 보인다. 김학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뛰어난 문학적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작가로서 그리고 민족지사로서의 인간성 또한 조선족 문단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작가요 혁명가이다. 김호웅<sup>18)</sup>은 김학철의 비판 정신에 초점을 맞춰, 그의 문학은 작가의 강한 의지력과 뿌리깊은 신념, 명석한 지성과 비판 정신, 풍부한 유머 감각과 신랄한 풍자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다. 현동언은, 이와는 달리, 김학철 문학의 인문 정신과 조선족의 민족의식을 관련시킨다. 김학철 문학을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진한 인문 정신이며, 그의 "인문 정신이란 민족,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의 생존 의의, 가치에 대한 추구하고 확인"<sup>19)</sup>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의 조선족 비평문학은 현동언의 김학철 문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인문 정신과 민족의식(또는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이끌어 내는데,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작품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의식과 민족문화 논의가 이제 작가론에까지 확장된다.

민족의식과 민족문화 논의는 사실주의 전통과 결합되면서 '민족적 사실주의' '개방적 사실주의'로 승화된다. 김관웅은, 「'인문 정신의 재건' '사실주의 충격파'와 중국조선족 문학의 진로」(『아리랑』, 1998.8)에서, 조선족 문학의 진로를 제시한다. "중국 조선족의 삶의 현장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민족성·현실성·비판성·건설성과 미래 지향성을 그 기본 특징으로 하는 사실주의 문학", 즉 '민족적 사실주의'가 그것이다. 그는 「97년 겨울철 소설 일별」에서 이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한다.

우리 문학은 숙명적으로 중국 조선족의 민족적 운명과 호흡을 같이 하게

18) 김호웅, 「우리 민족의 영웅, 우리 문학의 산맥—김학철웅」, 『아리랑』, 1997.5.

19) 현동언, 「김학철 소설 창작에 표현된 인문 정신」, 『아리랑』 제56호, 1997.5.

되어 있다. 그리고 문학 인구가 워낙 작은 우리 민족문학은 많은 작가들이 문학의 상아탑 속에서 순 예술적 추구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조선족 문학은 자연스럽게 민족적 공리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순 개인적이고 순 심미적인 성향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 문학이 드팀 없이 현실을 포용하고 현실을 직면하는 사실주의의 드넓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는 사실주의는 개방적인 사실주의로서 다른 문학 유포나 창작 방법의 흡수와 수용을 포기하지 않으며, 어젯날의 우리 민족의 삶의 역사를 그리거나 개인의 내면 세계를 그리거나 또는 소설 형식이나 기교에서의 혁신을 노리는 것을 허용하며, 민족이나 시대와 현실을 초월하는 영원한 문학의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들의 창작 자유도 존중함을 뜻한다.<sup>20)</sup>

김관웅이 제시한 민족적 사실주의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적 사실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실주의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비(非)사실주의적인 요소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 태도의 의식과 자세를 뜻한다고 하겠다. 바꿔 말하자면, 문학에서의 개방성과 사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사실주의 또는 개방적 사실주의는 신사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주의사실주의의 좌경화 편향, 문학과 정치의 유착 문제 등 광복 후 조선족 문학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4. 여성성, 여성의식, 여성문학

개혁 개방 시기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페미니즘적 비평의 등장울 들 수 있다. 광복 후 조선족 문단은,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류작가의 창작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

20) 김관웅, 「97년 겨울철 소설 일별」, 『도라지』, 1998.1.

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특히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여류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괄목할 정도로 활발해진다. 무엇보다 문단에 등단한 여류작가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들의 문학적 성과 또한 남성에게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질적인 면에서도 급성장한다. 특히, 이들 여류작가들은 여성의식 또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 여성문학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족 비평문학은 이 시기에 이르러 여류문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채미화의 「여류작가 창작에 반영된 애정 윤리의식」(『문학과 예술』, 1988.1)과 조일남의 「여성 형상 창조에서의 새로운 발견」(『연변일보』, 1980.8.8)은 여성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족 여류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윤리의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 한 채미화의 「여류작가 창작에 반영된 애정 윤리의식」은 여류작가의 소설을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단편 「기러기」(김영금, 『연변교육』, 1984.4)가 그려낸 도시 처녀와 시골 총각의 사랑을 “‘문벌’ 관념에 대한 몇몇한 도전이고 반격이며 새 시대 여성들의 새로운 사랑의 윤리”로 보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참회」(김영금, 『장백산』, 1985.1)에 표현된 재자가인형 혼인의 파탄, 여주인공의 신분 상승 노력과 그 성공을 ‘여자에게는 무재간이 덕’이라는 전통적인 애정 윤리관에 대한 맹렬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사회에서의 이혼 여성은 주위의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이혜선, 「거미줄」, 『은하수』, 1987.2), ‘혼외 사랑’에 빠진 여성은 정신적인 파탄을 겪어야 하며(이혜선, 「푸른 잎은 떨어졌다」, 『장백산』, 1987.1), 그래서 여성은 ‘혼외 사랑’ 그 자체보다도 혼인 제도 때문에 깊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이선희, 「그녀의 세계」, 문학반 창작집 『그녀의 세계』). 바꿔 말하여, 이들 여류작가는 전통적인 애정관과 낡은 윤리 도덕에 대해 항거하고 도전하고 있지만, 그들의 작품은 “전통적인 관념에 대한 미련과 새로운 윤리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미화가 이 글에서, 조선족 여류문학은 낡은 틀에서 탈피하려는 용



기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수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조일남의 「여성 형상 창조에서의 새로운 발견」(『문학과 예술』, 1988.1)은 남성 비평가로서 여류 문학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서툰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여권 신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그도 여인이었다」(이화숙, 『복두성』, 1987.2)가 내보이고 있는 직업 여성의 고민과 갈등은 자신을 이겨내야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사회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여권을 상당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사회 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성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여권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족 가정에서의 여권 신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욕구도 그러한 바, 조선족 사회의 여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와의 싸움, 자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일남은 「그도 여인이었다」를 분석, “현대 여성들의 주체의식의 강화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여류문학에 대한 논의는 1995년 11월 3일 연길에서 연변작가협회 평론분과 주최로 개최된 ‘조선족 여성문학 학술회의’를 계기로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런 세미나가 기획되었다는 자체가 문단의 여류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족 문단을 대표하는 원로작가를 비롯하여, 중견·신진 작가와 비평가 그리고 여류작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써 여류문학이 조선족 문단의 핫이슈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족 여성문학 학술회의’에서 현 단계 조선족 여류문학을 거시적으로 조명한 현동연의 주제 발표<sup>21)</sup>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조선족 여

21) 현동연, 「조선족 여성 소설에 체현된 여성의식—소설집 『너는 웃고 나는 울고』를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 1996.1.

류문학의 기본적인 인식을 ①생존의 곤혹—비극의식 ②생명의 진통—자아 초탈의식 ③모성—가치의의식 등으로 보고, 여성 생존의 곤혹을 야기한 원인으로 강권 정치와 사회의 오류적 사조, 남성을 주체로 내세운 전통적 윤리 도덕, 풍속과 습관에 토대한 문화의식, 여성 자신의 세속적 편견 또는 열등의식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조선족 여류문학의 일반적 특징은 일상적이고 범속한 생활 세계 및 개인 생활 체험의 포착, “서사 형태 상에서 심리 세계 및 감각적 형태에 대한 치밀하고 깊이 있는 발굴” 등이라고 밝힌다. 현동연의 이러한 주장은 비록 남성적 시각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류작가들의 의식 세계는 많이는 개인적 경험 범위 내의 자아의식에 국한되어 있기에 흔히 시각의 개방성이 결핍되고 표현된 생활 세계가 협소”하고, 따라서 “변화되는 현실과의 연계에 주의하고 역사와의 대화에 주의한다면 거기서 독자는 인류적인 삶, 시대와 역사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는 지적은 조선족 여류문학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낸 탁견이라 하겠다.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에서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위에서 살펴 보인 대로, 아직은 여류문학에 대한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윤리 도덕적 혹은 사회 역사적 접근에 국한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 여성문학의 위상을 온당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접근 등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 5. 결 어

광복 후의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은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변동, 그리고 당의 문예 정책과 중국 문단의 사조 변화에 상응하여 비평 이론과 방법들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각 시기의 조선족 비평문학은 사회 변동에 직면한 조선족 문학의 당면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의 독특한 전개 양상과 그 특성은 당대 조선족 문학의 성격을 규명하고, 민족문학론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하는 참조의 틀을 제공한다고 하겠는데, 이 연구의 의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조선족 문학은 문학관의 다원화와 비평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족 문단은 서구 문학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학관의 다원화 현상을 드러내는 바, 이에 힘입어 문학비평 또한 점차 다양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조선족 문학비평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평의 자각'에 다름 아니다.

개혁 개방 시기 중국조선족 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족성 또는 민족의식에 대한 각성과 인식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민족의 특성, 민족성·민족의식 등의 문제는 결국 민족의 정체성 인식에 직결되는 바, 이는 민족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접어들어 이에 대한 탐구와 노력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비평의 또 다른 특징으로 텍스트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규모의 확장, 비평 인구의 증가에 의한 외연의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신사실주의'를 비롯하여, '개방적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단적인 예이다. 특히 개방적 사실주의는 사실주의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비(非)사실주의적인 요소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 태도와 의식을 지향하는 바, 문학에서의 개방성과 사상 해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광복 후 조선족 문학의 문체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 볼 수 있다.

개혁 개방 시기 조선족 문학비평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성외식, 여성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문학비평에서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여류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윤리 도덕적 또는 사회 역사적 접근에 머물고 있는데, 따라서 조선족 여성문학의 위상을 온당하게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요망

된다고 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중국조선족 문학은 창작과 비평의 면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민족 국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민족성 또는 민족의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치·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바꿔 말하자면, 중국조선족 문학은 오히려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조장되는 것을 막고 인류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는 바, 조선족 문단의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문학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어떤 민족적 특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실천적인 의미를 갖느냐가 정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안팎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조선족 문단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인 바,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연변일보』 『길림신문』 등의 신문

『문학과 예술』 『연변문학』 『예술세계』 『장백산』 『천지』 『도라지』 등의 잡지

권철(외), 『중국조선족 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김관용, 『97년 겨울철 소설 일별』, 『도라지』, 1998.1.

김봉용, 『작가의 시각과 사유』, 연변인민출판사, 1999.

김성호, 『투사와 작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9.

김호웅, 『우리 민족의 영웅, 우리 문학의 산맥—김학철웅』, 『아리랑』, 1997.5.

리장수, 『우리 문학에 대한 사고』, 흑룡강민족출판사, 1992.

연변 문학예술연구소(편),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 이상갑, 「중국조선족 문학의 비평사적 위치 설정을 위한 시론」, 『문학과 예술』, 2003. 1.
- 임범송·권철(편), 『중국조선족 문학론』, 흑룡강민족출판사, 1989.
- 임범송, 『문예미학 연구』, 동북조선민족출판사, 1999.
- 장춘식, 『시대와 우리 문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3.
- 전경업, 「음영의 절대 권위 속의 인생 그래프」, 『도라지』, 1999.1.
- 전성호, 「중국 조선족 당대문학 평론 개관」, 『문학과 예술』, 1995. 3.
- 정판룡(편),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사료집』, 연변인민출판사, 2001.
- 조성일, 『시론』, 연변인민출판사, 1979.
- 조성일(외), 『중국조선족 문학 통사』, 이회, 1997.
- 조일남, 「새 시기 중국조선족 소설비평 연구」, 『문학과 예술』, 2002. 3.
- 최균선, 「사회 의식의 발굴과 전달력도-」, 『문학과 예술』, 2003. 1.
- 최삼룡, 『각성과 곤혹』,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4.
- \_\_\_\_\_, 『격변기의 문학 선택』, 흑룡강민족출판사, 1999.
- 최응구, 『김철과 그의 시』,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1.
- 현동언, 「김학철 소설 창작에 표현된 인문 정신」, 『아리랑』 제56호, 1997. 5.